

순창장류축제와 더불어 즐기는 페스티벌

'순창 장독에 빠진 팔방미인' 주제로 16일까지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

제1회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이 12~16일 순창군에서 열린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가 협력하여 도내 공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전라북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순창 장독에 빠진 팔방미인' 주제로 열리며, 도내의 관람객들과 전북공연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순창장류축제 일정과 맞물려 진행된다.

올해는 순창향토회관(사)드림필, 한국전통문화전당(사)타악연희원 아귀와 합곡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 정읍시예술회관-전북발레씨어터,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비비락 공연예술협동조합, 장수한누리전당(사)달란트마을 부인예술회관-전북예술문화원·포스댄스컴퍼니 등 6개 공연장, 총 8개 상주단체가 연극·국악·양악·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축제는 12일 오후 7시 순창 향토회관에서 드림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무대로 열린다. 바리톤 이대혁, 전자비올라리스트 강지수, 가수 김희진 등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림 가을쇼'를 열을



축제는 12일 오후 7시 순창 향토회관에서 드림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무대로 열린다.

악회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어 합곡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의 기적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이는 백중날 마을축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룻밤, 낮 마을축제가 열리는 모습을 전통공물 연희로 표현한다. 14~16일 순창장류축제 주무대에서는 타악연희원 아귀의 아귀타타를 비롯해 극단

갯골의 마당극 남도 천치밤, 전북발레씨어터의 발레 불래? 해설이 있는 갈라 공연, 달란트 연극마을의 아깁잡이 주는 나무, 포스댄스컴퍼니의 판타스틱 이쿠아, 전북예술문화원의 Brass of Music, 비비락 공연예술협동조합의 여시코빠기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드림필하모니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이

번 행사는 순창장류축제와 함께 열리는 '축제속의 축제'가 될 것이다"라며 "행사가 동시에 진행돼 위험부담이 상존하지만, 실질적인 무대라서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문화 갈증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넥슨, 10월에 신작 7종 출시 '모바일 시장 공략'

넥슨이 '메이플스토리M' 등 신작 7개를 앞세워 모바일 게임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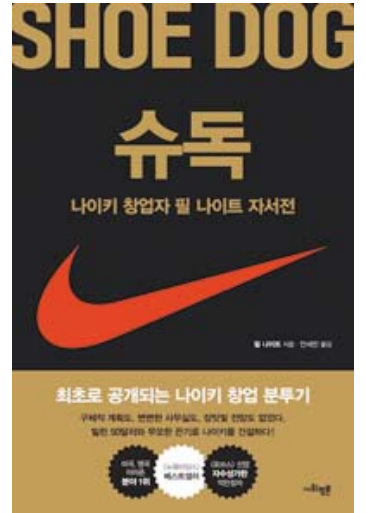
넥슨은 10월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넥슨 모바일데이'를 개최하고 자체 개발 및 퍼블리싱 모바일게임 7종을 공개했다.

10월 출시작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메이플스토리M, 몬스터플래너이 개발한 캐주얼 퀴즈게임 '퀴즈퀴즈', 코쿰 게임즈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진격의 군단' 등 3종이다.

13일에 출시되는 메이플스토리M은 기존 메이플스토리 게임이었던 신규 게이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다. 퀴즈퀴즈와 진격의 군단은 각각 20일, 27일에 나온다.

또 미어캣게임즈의 대전 액션 모바일게임 '히레나 마스터즈'와 네오플의 '년전엔파이터:혼', 쿨론이 개발 중인 '엘스드 슬래시'의 시범 테스트 일정(18~22일)이 공개됐다.

/뉴시스



우리가 몰랐던 나이키 성공 신화 다룬 '슈독'

'Just Do It', 승리를 상징하는 로고 스우시(Swoosh)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브랜드 '나이키'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단돈 50달러에서 시작된 나이키의 창업 스토리, 그리고 그 뒤에 거머쥔 은둔의 경영자 빌 나이키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신발 연구에 미친 사람'이란 은어인 '슈독'(Shoe Dog)은 가진 것이라곤 무모한 열정과 끈기밖에 없었던 24살 청년 빌 나이키가 일본 운동화를 수입해 팔던 보따리 장사를 세계적 브랜드 나이키로 일궈내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최초의 자서전이자 나이키의 역사서다.

그는 이 책에서 아디다스, 푸마가 주도하고 있던 스포츠용품 업계의 후발주자, 나이키가 어떻게 업계의 1인자가 되었는지, 그 창업과 혁신의 과정은 물론 그와 함께 지금의 나이키를 있게 한 '신발에 미친 과학자들과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세세하게 회고한다. 나이키는 불같은 성미만큼 운동화 개발에 열정을 가진 동업자 빌 바우어만, 운동화와 달리기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가진 나이키를 런칭했다. 나이키 런칭도 오니츠키가 더 이상 신발을 공급하지 않으려 하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 이후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와플형 밑창과 에어 쿠션 등의 제품 혁신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으며 업계의 1인자로 올라선다. 그리고 1976년 회사 이름을 나이키로 변경한다.

사업 첫해 매출액 8000달러에 불과했던 나이키는 현재 연 매출 300억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이키의 로고, 스우시(Swoosh)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몇 안 되는 아이콘이 됐다.

/뉴시스

기발한 사회풍자 코미디 연극 '수상한 집주인' 익산에서 만나요

익산예술의전당 슨리문화예술회관

익산예술의전당은 새로운 사회풍자 코미디 연극인 '수상한 집주인'을 슨리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린다.

정리하고 당한 주인집 남자에게 우연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이 전화에 자신의 인생은 지옥으로 바뀌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남자의 블랙 코미디가 색다른 웃음을 준다. 연극 '수상한 집주인'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 연극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한 주인집 남자의 횡령사건을 그린 내용으로 제목에서 그려지듯, 집주인은 자신의 거짓말 대상을 한명씩 죽이기 시작하는데 거짓말은 더 눈덩이처럼 커져 수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21세기 코미디 전형이라는 평을 받는 이 작품은 흑시 한복춤 나예에게도 황제가 찾아오진 않을까라는 가정 하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극작가 마이클 루니는 영국의 연극에 머물지 않고 미국 할리우드로 넘어가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인 작품 '책 프로스트', '아이덴티티' 등을 연출해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각본을 맡아 국내에도 인지도가 높은 작가이다.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라이어' 식의 소풍극을 한 단계 뛰어넘어 할리우드식 완벽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연극



'수상한 집주인'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들과 정신줄 놓은 오합지졸 캐릭터들의 정신없이 질러대는 대사로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낼 것이다. 연극의 내용은 어느 날 갑자기 전기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 집주인 남자에게 아내인 린다에게 말을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신경통을 앓고 있던 이사 간 2층 세입자 루퍼트 톰슨 앞으로 잘못 날라 온 사회복지료를 챙기게 된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와 보험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과 여러명의 가상 인물들을 만들어 사회복지료를 횡령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담당 사회복지사인 켄킨스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과 상황들을 만들어 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새로운 세입자 노안은 진실을 말하려 하지만 에릭의 끈수에 빠져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는 상황들로 결국 에릭과 한 배를 타게 된다.

이 공연은 익산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공연은 15일 오후 3시와 5시 입장료는 전석 1만원.

문의는 063)859-5278. /정해은 기자

벽골제 주제로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단아별곡'

지평선의 고장 김제를 대표하는 벽골제를 소재로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단아별곡' 공연이 11일 오후 7시 30분 김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감동적인 사랑이야기를 가지고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김제태수의 딸인 단아가 벽골제 제방을 마구 무너뜨리는 청룡에게 제물로 바쳐져 벽골제와 백성들을 살려낸다는 고전설화를 단아의 효심과 제방 보수 기술자 원덕랑을 사랑하여 원덕랑의 약혼자 월내 대신 용의 제물로 스스로 바치게 되는 이야기이다.

특히 통일시대 원성왕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갈등의 발단인 신분제인 골품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원덕랑의 욕망이 오늘날 수직계급론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가 재조명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급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0월 11일>

▷쥐띠
46년생: 이동, 변동권이 들어와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은 운이다.
60년생: 일적인 능력은 오히려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84년생: 인덕은 있는 운이나 마무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

▷소띠
49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좋은 문서를 발견한다.
61년생: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73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욕심은 삼가라.
85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74년생: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운이니 경계하라.
86년생: 하고자 하는 것마다 조용히 넘어가지 못한다.

▷토끼띠
51년생: 재물에 탐욕이 지나치면 재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63년생: 구설수로 인해 마음 고생할 수 있는 운.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

▷용띠
5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64년생: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상이나 노력하면 좋은 결실.
76년생: 부부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
88년생: 도둑을 사람을 만나게 되니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

▷뱀띠
53년생: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려하지 말고 하나씩 처리하라.
65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고 타인으로 인해 어려워진다.
7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후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89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말띠
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이다.
66년생: 지나친 자신감을 실수를 불러오니 조심스럽게 진행.
78년생: 동기인과 약속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90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니 욕심 부리지 말라

▷양띠
55년생: 지나간 과오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다.
67년생: 다른 사람과의 금전거래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9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뒷사람의 도움이 따른다.
91년생: 동성보다는 이성의 조언을 따라라. 좋은 결과가 있겠다.

▷원숭이띠
55년생: 원형은 삼가라. 다치거나 아플 수 있다.
68년생: 대외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이 따르니 매사에 주의.

▷닭띠
57년생: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라.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93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갈 운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진행.

▷개띠
48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거나 큰 문제는 발생한다.
60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라.
7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4년생: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니 이겨내면 나중은 해결.

▷돼지띠
47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함.
59년생: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운.
71년생: 겉은 화려해 보이는 듯하니 속은 허하니 내실에 집중.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긴다.